

16. 눈 뜸과 예수 살기 (막 10:17-52)

들어가면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심히 어렵도다” (막 10:23). Q: “재물이 있는 자”(부자)는 교회 나오지 말라는 말인가? 혹은 자발적 가난(voluntary poverty)을 취하란 말인가?

1. 다시 읽기: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 (막 10:17//눅 18:18-23 =>눅 10:25-37//막 12:28-34)
 - 대전제: 정체성과 행동윤리 확인 => 십계명 (모세와 시내산: 출애굽기 20 장)
 - 응용: 재물과 하나님 나라 (선택이 아닌, 대전제에 따른 당연한 귀결)
2. “영생”(구원/극락=>행복)에 이르는 길
 - 지배이데올로기가 제시하는 바는?
 - 하나님 나라 vs. 로마제국

1:14-15	하느님 나라	로마 제국
8:33	하느님의 일	사람의 일
3:28-30	거룩한 영	더러운 영
2:5; 4:40; 9:19, 24; 11:22	믿음/신학 있음; 용기	믿음 없음/신학 없음; 두려움
8:35-37; 10:29	복음을 위해 목숨을 버림	목숨을 지킴
10:45	작은 자, 섬기는 자	큰 자, 지배자
	선행, 양생적 신학	악행, 살생적 신학

3. Q. 왜 근심하고 갔으며,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는?
 - 근심? 재물(지배이데올로기)를 통해 “영생” (행복, 구원)을 얻으려 함=>정체성 상실; 혹은 그 정체성이 “하느님 나라”(예수의 신학/복음)에 있지 않고, 로마제국(지배이데올로기)과 함께 함.
 - 재물과 구원—혹은 재물과 하나님—의 문제라기 보다 (물질과 하나님은 비교 대상이 못됨), 재물 이면의 지배 이데올로기(Mammon, 로마제국)와 하나님 나라의 문제. cf. 막 4:19
 - 재물에서 자유함=> 무소유가 아니라, 재물—지배이데올로기—에 매이지 않음. 바울 (세상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고전 5:10); 요한 (너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17:15)=> 세상과의 단절이 아니고,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 여기서 세상(κόσμος)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체제(system)를 의미 (윌터 윙크, 사탄의 체제와 예수의 비폭력)
 나는 거룩한 소명을 배신해버린 제도와 구조의 실제적 영성을 “악마”라고 말하는 것이다. 내가 “지배체제”(Domination System)라고 표현할 때는, 권세들의 전체 네트워크(연결망)가 우상의 가치를 중심으로 통합되었을 때 일어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함이다. 지배체제가 이 세계를 그 안에 둘러싸고 있는 정신(영)을 나는 “사탄”(Satan)이라고 부른다. (p. 35)

A. 야고보와 요한

1. 그들이 구한 것은? 예수의 영광이 자리에서 좌우편 (9:37), 신학(하기)의 틀=지배이데올로기에 매인 상태 (예수는 다른 비전/신학/복음/이데올로기를 제시)
 - 예수의 관과 세례의 의미=> 예수의 십자가/자기 십자가(8:34)
 - 예수의 좌우에 배치된 사람은=> “강도” (ληστής, 막 15:27). Richard A. Horsley with John S. Hanson, *Bandits, Prophets, and Messiahs: Popular Movements in the Time of Jesus* (Harrisburg, Penn.: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85, 1999).
 -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14:48)
 - 강도 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15:27)
 - 예수의 죄가 신성모독이었다면, 돌에 맞아 죽어야 (요 10:31-33) =>다른 말로, 예수의 죽음의 정치적 성격.

2. 야고보/요한이 구해야 한 것은?

- 너희에게/내게 무엇을 하여주기를 원하느냐 (36 절, 51 절)
- 영광 (지배이데올로기) vs. 깨달음 (예수의 복음)

B. 바디매오

- 8:22-10:52 은 문학적으로 한 단락
- 소경이야기로 literary *inclusio* 형성 (마가복음에만)
- 바디매오 (שֵׁמֶט-רַב, son of unclean)
 - 뜻: 부정한 사람의 아들=> cf. 삿 3:7-11, Cushan-Rishathaim (Cushan-of double wickedness)
 - 이런 이름도 있을까? (=> "unclean Spirit", 더러운 영). 지배체제의 영, 더러운 영에 쌓인/영향 하에 있는 사람을 대표 (literary construct)

	예수 앞에 나오기 전	예수 앞에서
요구사항	자비/자선을 구함 (ἐλέησόν με)=>	보기를 구함 (ἵνα ἀναβλέψω)=>
	그 결과 구걸, 곧 후견인 제도/ 체제에서 살아남기를 구함 => 막 8:26,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다시는 구걸하지 말라 (Gundry, 419-420)	겉옷(old self)을 내어버리고=> 체제의 잘못을 보는 눈. 자신이 피해자, 그로부터 뛰쳐나오길 구함. 본래의 인간성 회복
호칭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부름 => cf. 막 12:35	예수를 "랍비"(My Master)라 부름 => "라보니"는 아람어 (9:5; 10:51; 11:21; 14:45) cf. 요 20:16
제자도/道(ὁδός)와 관련하여	길 가(παρὰ τὴν ὁδόν)에 앉아 있음. Cf. 막 4:4, 15	예수를 길에서(ἐν τῇ ὁδῷ) 좇음.

-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10:52 => 5:34)

REFLECTIONS:

1. 1세기 로마제국 치하의 팔레스타인에서 “재물이 있는 자”란? 그 의미는? 21세기 한국/미국 상황은? (제2강, “하느님 나라 vs. 로마제국” 참조)
 - 당시는 가진 자(재물)와 못 가진 자가 사회 계급/신분—이데올로기—반영
 - 지금은 연속적 스펙트럼 (continuous spectrum) => 성서 재해석의 필요성
2. 신학 다시하기 혹은 성서 다시읽기 측면에서, “재물이 있는 자”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삼각형 생각하기)
 - 정치, 경제, 종교=> one organic whole
 - Jerusalem Temple (Priests)와 대형교회=> 어떤 이데올로기(신학, 복음)을 반영하는가?